

가와치 오쓰카야마 고분

가와치 오쓰카야마 고분은 니시오쓰카의 히가시요케가와 강 서쪽에 발달한 중위단구면에 축조되어 있다. 해자가 주위를 두르고 있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이다. 분구 규모는 전장 335m, 전방부 폭 230m, 후원부 지름 185m, 전방부 높이 4m, 후원부 높이 20m 에 이른다. 전방부는 거의 북향이다. 인공적으로 축조하였으나 후원부 정상은 해발 45m에 달하여 마쓰바라 시내에서 표고가 가장 높다.

분구 주축의 길이로는 일본에서 다섯번째를 자랑하지만, 축조 시기를 결정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나 ①전방부는 낮고 평평하며 다소 부정형한 점. ②토옹과 이음돌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후원부에 ‘고보이시’ 라는 거석이 존재하며 또한 에도시대 후반의 모리 가문 문서의 ‘아보 친왕 사취집(事取集)’ (야마구치현립 문서관 소장)에 ‘미가키도이시’ 라는 거석이 18 세기 후반에 나타난 점. ④고분 내에 있던 석실과 석관의 자재로 여겨지는 다쓰야마이시돌과 화강암이 시바가키 신사(마쓰바라시 우에다 7 초메) 등으로 이설된 점.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횡혈식 석실이 후원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6세기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축조된 고분으로 추정된다.

중세에는 단계 가문이 고분을 이용하여 단계성을 축성하였다.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단계성이 파괴된 후, 에도시대에는 전방부에 오쓰카무라 촌락이 형성되었고 후원부에는 씨족신을 모시는 덴만구 신사(스가와라 신사)가 세워졌다.

1921년 3월에 국가 사적(1941년 12월 해제)으로 지정되고 1925년 9월에 능묘 참고지로 지정됨으로써 1928년까지 수 십호의 민가는 해자 밖으로 이전되었다.

6세기의 안칸 천황과 긴메이 천황능이라는 설이 전해지는 동시에 분구 미완성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궁내청이 관리하는 능묘 참고지이다.